



〈성 정 바오로 성당〉

[부속가] 〈성체송가〉

찬양하라 시온이여, 목자시며 인도자신, 구세주를 찬양하라.
 정성다해 찬양하라, 찬양하고 찬양해도, 우리능력 부족하다.
 생명주는 천상양식, 모두함께 기념하며, 오늘특히 찬송하라.
 거룩하온 만찬때에, 열두제자 받아모신, 그빵임이 틀림없다.
 우렁차고 유쾌하게, 기쁜노래 함께불러, 용약하며 찬양하라.
 성대하다 이날축일, 성체성사 제정하심, 기념하는 날이로다.
 새임금님 베푸잔치, 새파스카 새법으로, 낡은예식 끝내도다.
 새것와서 옛것쫓고, 예표가고 진리오니, 어둠대신 빛이온다.
 그리스도 명하시니, 만찬때에 하신대로, 기념하며 거행한다.
 거룩하신 말씀따라, 빵과술을 축성하여, 구원위해 봉헌한다.
 모든교우 믿는교리, 빵이변해 성체되고, 술이변해 성혈된다.
 물질세계 넘어서니, 감각으로 알수없고, 믿음으로 확신한다.
 빵과술의 형상안에, 표징들로 드러나는, 놀랄신비 감춰있네.
 살은음식 피는음료, 두가지의 형상안에, 그리스도 온전하다.
 나뉘고 갈림없어, 온전하신 주 예수님, 모든이가 모시도다.
 한사람도 천사람도, 같은주님 모시어도, 무궁무진 끝이없네.
 선인악인 모시지만, 운명만은 서로달라, 삶과죽음 갈라진다.
 악인죽고 선인사니, 함께먹은 사람운명, 다르고도 다르도다.
 나뉘는성체 조각마다, 온전하게 주 예수님, 계시움을 의심마라.
 겉모습은 쪼개져도, 가리키는 실체만은, 손상없이 그대로다.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제1독서] 탈출 24,3-8

[화답송] 시편 116(114-115),12-13.15와 16ㄷ ㄹ.17-18
 (© 13)

◎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오?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
-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 ◎
- 주님께 감사 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

[제2독서] 히브 9,11-15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복음] 마르 14,12-16.22-26

[성가 안내] • 입당성가: [162] 성체 성혈 그 신비
 • 봉헌성가: [218] 주여 당신 종이

• 성체성가: [198] 성체 안에 계신 주님 [501] 받으소서 우리 마음
 • 파견성가: [200] 열렬하신 주의 사랑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다. 이날 교회는 예수님께서 성목요일에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것과, 사제가 거행하는 성체성사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현존을 기념하고 묵상한다.

6월 11일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사제 성화의 날)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은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공경하며 그 마음을 본받고자 하는 날이다. 이 대축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다음 금요일에 지내는데, 예수 성심이 성체성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예수 성심에 대한 공경은 중세 때 시작하여 점차 보편화되었다. 1856년 비오 9세 교황 때 교회의 전례력에 도입되었으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대축일로 지내고 있다.

한국 천주교회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권고에 따라, 1995년부터 해마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에 '사제 성화의 날' 을 지내고 있다. 이날은 사제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 선포의 직무를 더욱 훌륭히 수행하는 가운데 완전한 성덕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날이다. 또한 교회의 모든 사람이 사제직의 존귀함을 깨닫고 사제들의 성화를 위하여 기도와 희생을 바치는 날이기도 하다.

사제들을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 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축성하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 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 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 아멘.



아버지와 나는
같나다.
(요한 10, 30)
바오로 딸 콘텐츠

복음 묵상

우리가 미사 안에서 만나게 되는 성체와 성혈의 의미는 하느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실 때는, 짐승의 피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옛 계약, 곧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더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모든 사람을 위한 새로운 계약을 하느님께서 맺으십니다. 새로운 계약, 곧 신약입니다.

계약이라는 조금은 경직된 형식의 언어가 사용되지만, 이 계약 안에는 사람을 향한, 나를 위한 하느님의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 예수님의 자기희생과 내어 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은, 하느님과 예수님과 일치 이루어 주는 큰 신비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이 큰 사랑의 신비를 우리는 비교적 손쉽게(?) 미사 안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드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 주시고자 구약의 긴 역사가 필요하셨습니다. 한두 세대가 아니라 수천 년의 기나긴 시간입니다. 아울러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따뜻함이 필요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대한 지극한 사랑이 필요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겠다는 예수님의 자기 결심이 필요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시작된 긴 역사와, 죽음에 이르기까지 온갖 멸시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철저한 자기희생이 없었다면 결코 가능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을 성체와 성혈이 품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마주하고 있는지요? 나를 향한 하느님의 따뜻함과 품어 줌의 절정, 그것이 우리가 참례하는 미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사랑의 표지가 바로 우리가 미사에 참례하는 것만으로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보배로운 몸과 피입니다. <박형순 바오로 신부>



“우리가 모시는 성체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사고방식을 전해줍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루카 9,13).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만드십니다.
그분께서는 화려한 동작으로 기적을 완수하시지 않고, 보잘것없는 것들로,
당신 손으로 떼어서 주고, 배분하면서, 나누면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하느님의 권능은 오직 사랑으로 이루어진, 겸손한 권능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작은 것을 위대한 것이 되게 합니다.

성찬례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곧 빵 한 조각 안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단순하고 본질적인, 쪼개지고 나누어진 빵,
우리가 모시는 성체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사고방식을 전해줍니다.
아울러 우리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내어주도록 이끕니다.

‘죄송하지만,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에 맞서는 해독제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도와드릴 수가 없군요,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에
맞서는 해독제요, 다른 편에서 바라보는 것에 맞서는 해독제입니다.”

〈2019년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성혈 대축일 미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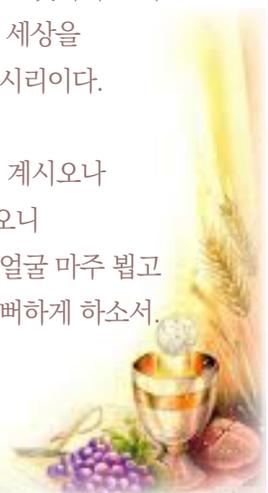


〈지거 쿨더(Sieger Köder), 최후 만찬〉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

-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우러러 뵈을수록 전혀 알 길 없기에
제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
- 보고 맛보고 만져 봐도 알 길 없고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오니
민나이다, 천주 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
-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 올리나이다.
- 토마스처럼 그 상처를 보지는 못하여도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어 의심 앓사오니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
-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사여,
사람에게 생명 주는 살아 있는 빵이여,
제 영혼 주님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
- 사랑 깊은 펠리칸, 주 예수님,
더러운 저를 주님의 피로 씻어 주소서.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 내시리이다.
- 예수님, 지금은 가려져 계시오나
이렇듯 애타게 간구하오니
언젠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주 뵈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 아멘.



1 예비자 환영식 "예비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 예비자 환영식 : 6월 6일(일) 오전 10시 미사
-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예비자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예비자들이 믿음의 삶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신자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첫 영성체식

첫 영성체를 하는 학생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들은 지속적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6월 13일(일) 10시 미사 중
- 첫 영성체 학생들 : Oh Matthew / Won Seohyun / Yu Alexander / Carr Eleanor / Lee Minwoo / Koo Isaac / Yoon Yijung / Kang Sian / Jun Adrian / Shin Diane / Choe Ethan / Lim Lia / Kang Eva / Yoon Alex (총 14명)

3 신앙 고백(신경)

- 사순과 부활시기 이외에는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바칩니다.

4 레지오 마리아 주 회합

- 레지오 마리아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 레지오 회합을 주일에서 평일(목, 금도 가능)로 이동하실 브레시디움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신학생 파견

- 이동한 다니엘 신학생이 6월 7일부터 8월 1일까지 St John the Apostle Catholic Church로 파견을 갑니다. 기도 중에 기억해 주세요.

6 주일학교 푸드 드라이브

- 도네이션 품목 : 오렌지, 사과
- 드라이브 스루 : 6월 6일(일) 오후 2-5시

* 6월 8일(화)은 버지니아주 예비선거일입니다. 친교실 사용을 금하니 단체모임은 하상관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미사 참석 의무에 대한 알링턴 교구의 지침

- ▶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주일 미사참석 의무가 면제되었으나 6월 26일(토) 저녁미사(연중 제13 주일)부터 주일미사 참석에 대한 의무를 복원합니다.
- ▶ 단, 이 의무는 아픈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나 기타 중증 또는 전염성 질병에 노출되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 병원,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들, 심각한 건강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당 정상화에 따른 행정 지침

- 5월 31일(월)부터 사전 신청 없이 미사가 진행됩니다.
- 미사 참석자들은 마스크와 거리두기 등 봉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성당에는 손 소독을 꼭 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 성당 좌석은 한 자리씩 띄워서 앉으며, 표시된 줄에만 앉습니다.
- 미사때 응답과 성가는 작은 목소리로 할 수 있습니다.
- 주·월 회합은 마스크와 거리두기를 합니다. (단, 음식나누기는 금합니다.)
- 회합 장소는 사전에 사무실과 협의합니다.
- 모든 모임은 각 단체 사도회 부회장에게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임시에 마스크 쓰기과 거리두기를 최대한 준수합니다.

성가책을 지침해 주세요.

미사때 성가는 작은 목소리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며, 당분간 성가책은 개인이 지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승격 25주년



감사 미사

- 10월 3일(일) 오후 3시(마이클 버빗지 주교님 미사 집전)

매 미사 시작 전 25주년 기도문

- 공동체의 영적 성장과 일치를 지향하며 미사 전에 본당 승격 25주년 기도문을 바칩니다.
- 기도문은 주보대에 있습니다.

25주년 기념 본당 설문조사

- 설문지는 본당 설문지 함이나 사무실에 제출해 주세요.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성체 성혈 대축일 주간 : 마무리하기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1년 5월 30일(삼위일체 대축일)

주일헌금	\$ 3,535.00
교무금	\$ 6,125.00
교무금(신용카드)	\$ 1,790.00
감사헌금 & 성소후원회	\$ 560.00
온라인 봉헌	\$ 2,482.00
합계	\$ 14,492.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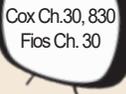
- 6월 9일(수) 오전 6:15-6:45
- 6월 12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김태진 주임 신부님의 주일 미사 강론
- CBCK 미디어교리 - 준성사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 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성정바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 6월 10일(목) 오후 5:00-6:00
- 6월 11일(금) 저녁 8:00-9:00
- 6월 13일(일) 오전 6:00-7:00



1. CPBC 뉴스
2. 신부님 미사 강론
3. 우리 시대 일곱 교황 : 순례자 교황 - 탁월한 교리 학자 요한 바오로 1세



성당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 미사에 참석할 때나 성당에 오실 때는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황님의 6월 기도 지향 |

복음화 지향 : 혼인의 아름다움

혼인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도움으로 포용과 신의와 인내로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카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과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소아전문 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현훈 (마르코) 센터빌, 챌탈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 · 메디케어 은퇴연금 · 사업체 보험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커머셜 김준 부동산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태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원 통증 · 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뉴욕라이프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녀 저축보험 박수미(미카엘라) 571-263-1033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제니스김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제니스김 (베로니카) 571-723-6172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영스 노인 복지센터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박정훈(요한) 치과 Family Dentistry 마운트 버번 병원 근처 703-679-8959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상품, 카이저 보험 현재 플랜에 관한 무료 상담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워싱턴 노인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문의: 데레사 데이케어 703-963-1234 홈케어 703-850-1100
경희 바울 한의원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프렌즈 헬스케어/데이케어 간병 및 물리치료 데이케어 서비스 임 에스더 703-819-0360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형법, 개인상해, 파산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재무설계 생명보험, 학자금, 은퇴연금, 롱텀케어 개개인에 맞는 플랜 설계 탁지은(안젤라) 202-431-0627
DK 건강 보험 1956년생 메디케어 무료상담 및 신청 정문기(윌리엄) 703-598-3316 정선화(도로테아) 703-862-5395	GCOOP 케어셀라 천연 고기능성 화장품 맑고 투명한 물광피부 약속 김은희(갈라라) 703-732-3836	광고 접수중!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안내

주일미사 생중계
 매 주일 오전 10시 미사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생중계는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지난 주일 미사도 본당 웹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www.stpaulchung.org

청소년·청년들을 위한 SNS

 **SPC Emmaus**
 **SPC Emmaus**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평일미사	월요일	06:00 AM
	· 10:00 AM		화요일	07:30 PM
· 05:00 PM		목요일	11:00 AM	
		금요일	06:00 AM	
		토요일	07:30 PM	
			토요일	06:00 AM/05:00 PM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 사도) |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